

사성제 · 팔정도, 부처님 가르침의 중심

‘현대불교 입문’ (마츠다니 후미오 저, 정병조 前금강대 총장 편역)

8. 부처님의 근본설법

교법의 지위(地位)

삼보란 불타와 교법과 승가(僧伽), 오래된 표현으로 하면 성자(盛者)와 성자의 가르침과 성제자중(聖弟子衆)이다. 그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석존의 제세중(在世中)에는 역시 제일보(寶)인 불타였다고 생각한다. 오래된 경전에 쓰인 것을 보면 제자들은 자주 ‘법은 세존을 안목으로 하며 세존을 도자로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교법이 흘러나오는 원천(源泉)은 세존이며 따라서 가장 큰 관심을 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석존 자신에게 있어서는 명확한 자각 밑에서 진실로 선다는 것은 법이며 이 색신(色身)의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다. (여시어경(如是語經)에 석존은 비구들에게 이렇게 가르친 일이 있었다. “비구들이여, 비록 내 옷의 자락을 잡고 내 바로 뒤에 따라서 다니다 하여도, 만일 그 사람이, 욕심을 품으며 노여움을 품으며, 사악(邪惡)한 마음을 품으며, 게으름에 잠겨, 지혜(知解)하는 바가 없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며 나는 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음이다. 왜냐하면, 그 비구는 법을 보지 않기 때문이다. 법을 보지 않는 자는, 나를 보지 않는 자이기 때문이다.”

또한 석존이 그의 열반(涅槃)을 눈앞에 두고 아난다에게 그 가르침의 말씀은 더 명쾌하게 그 생각의 방식을 표현한 것이었다.

“아난다여, 비구들은 나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 것인가. 나는 안오로나 밖으로나, 모든 법을 남김없이 설명하였다. 여래의 법에는 그 중 어떤 것을 제자에게 감추는 것 같은 교사(敎師)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비밀은 없느니라. 그러므로 아난다여, 그대들은 여기에 스스로를 등명(燈明)으로 하며 스스로를 의처(疑處)로 하여, 다른 사람을 의처로 하지 말며, 법을 등명으로 하며 법을 의처로 하여 다른 것을 의처로 하지 않으면서 주(住)하는 것이 좋으리라.”

그리고 얼마 후에 불타는 이 지상에서 사라지셨다. 그 때부터 지금까지 불타의 길을 가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틀림없이 교법만이 가장 큰 존경의 대상 가장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상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열반 후 제자들이 제일 먼저 착수한 것도 교법과 계율(戒律)을 결집(結集)하는 일이었다.

사제설법의 위치

석존이 45년에 이르는 전도교화(傳道敎化)의 생애 가운데서, 때에 따라 혹은 기회(機會)에 응(應)하여 사람들을 위해 설명한

교법은 그 수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다. 이 스승이 입멸(入滅) 후 얼마 되지 않아 중요한 제자들에 의해서 결집(結集)된 교법은 소중히 전해졌으며 또 여러 형태로 편찬(編纂)되어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한역 사아함(漢譯四阿含)이 되었으며 또 파알리 오부(五部)가 되었다.

지금 빠알리 오부가 포장(包藏)하는 경수(經數)를 전부 합하면, 일만 팔천 여에 이른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경전이지만 이것으로써 석존이 생애동안 설명한 것을 모두 망라(網羅)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방대한 양에 이르는 설법 가운데서 어느 설법이 가장 중요하며 어느 설법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냐고 묻는다면 우리들은 곧 소위 (사제설법)를 들면서 여기에 법의 핵심(核心)이 있으며 여기에 그분의 근본설법이 있다고 대답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은 이미 석존 스스로 여러 번 분명하게 지적한 것이기 때문이며 또 그 제자들이 분명히 수지(受持)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때 한 사람의 비구가 스승인 불타를 찾아가서 물은 일이 있었다.

“대덕(大德)이시여, 무명(無明), 무명이 라고 말하지만 어떠한 것이 무명일까요?”

불교인들은 모든 악(惡), 불선(不善)의 근본(根本)력을 지적하여, 그것은 무명(無明)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무서운 존재인 무명은 도대체 어떠한 것일까. 이것을 가장 명쾌하게 가장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는 것이 비구의 물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이것에 대한 석존의 대답은 매우 간명하게 “그것은 사제에 관해서 무지(無智)하다는 것이다”라고 대답하신 것이다.

현실의 인생을 직시하며

사제설법은 잘 알려져 있듯이 녹야원에서 거행된 석존의 ‘최초의 설법(초전법륜, 初轉法輪)’의 일부로서 설명된 것이며 또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 제일제는 ‘고(苦)성제’라고 이른다. 그것은 이 인간생활의 있는 그대로를 관찰한 결론이라 할 수 있다. 이 인생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만족할 만한 것일까 아닐까. 그것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은 분명히 부정적(否定的)이었다.

“비구들이여, 고(苦)의 성제란 것은 이런 것이다. 즉 생(生)은 고(苦)이다. 노(老)는 고이다. 병(病)은 고이다. 사(死)는 고이다. 원망스럽고 미운 자를 만나는 것은 고이다. 사랑하는 자와 이별하는 것은 고이다. 구하면서 얻지 못하는 것은 고이다. 요약해서



조계종립 동국대의 상징물인 팔정도 광장의 부처님 모습.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인 팔정도를 표현했다.

말하면 이 오온(五蘊)(인간의 존재)은 모두 고이다.”

이 인생은 결국 괴로움이다. 일체(一切)는 모두 괴로움이다. 이러한 것은 이미 그가 출가(出家)할 때의 과제였지만 이제 그 깨달은 바를 토대로 해서 사람들에게 그 교법을 전개(展開)함에 있어서도 이것이 또 그 기점(基點)이 되고 있다.

물론 이 인생에는 괴로운 일도 있으며 즐거운 일도 있다. 기쁨도 있으며 서러움도 있다. 이 인생의 진상에 불타도 또한 눈을 감은 것은 아니었다. 만일 인생의 괴로움과 슬픔만을 보며 즐거움, 기쁨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그가 단호히 물리치려고 하는 하나의 극단(極端) 금욕주의(禁欲主義)에 떨어지는 일이다. 금욕주의는 또 하나의 극단, 쾌락주의(快樂主義)와 함께 그가 분명히 물리친 입장이었다.

그러나 좀 더 파 내려가 보면 이 무상천류(無常遷流)의 인생에 있어서 기쁨은 언제까지나 기쁨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며 즐거움은 언제까지나 즐거움 그대로만 있을 수 없다. 그러면 얼마 후에는 괴로움에 의해서 대신 될 즐거움이란 무엇인가. 기쁨이 얼마 후에는 서러움으로 변한다면 그것이 과연 진실한 기쁨일까. 석존이 이 인생은 결국 괴로움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러한 입장에서 하는 말이다. 이것을 우리들은 불타께서 ‘행고(行苦)’를 설명하셨다고 말한다. ‘행고’라는 것은 제행(諸行)이 무상한데서 연유(緣由)하는 고(苦)라는 뜻이다.

문제해결의 방도(方途)

부처님은 의연(毅然)하게 이 현실적 인생의 모습을 부정(否定)하였다. 거기에서 출발하면서 그는 다시 의연하게 이 인생개고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진한다. 그때 먼저 그의 생각하는 방식의 공식(公式)이 된 것은 앞서 말한 ‘연기(緣起)의 법칙’이었다. 즉 “이것이 있음으로 연(緣)해서 이것이 있다. 이것이 생겨남으로 연해서 이것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인생이 지금 괴로운 것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에 관해서

는 당연히 그 ‘연(緣)하여 생겨나는’ 원인(原因)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있는데 연(緣)해서, 이 괴로운 인생이 있는 것일까’ 이렇게 하여 그가 탐구한 것이 제이제<고(苦)의 집(集) (원인)의 성제’였다.

“비구들이여, 괴로움의 원인의 성제란 이것이다. 즉 후유(後有)를 가져오며 회담이 함께 일어나며 이곳저곳에서 환희(歡喜)하는 갈애(渴愛)이다. 이것에 욕에(欲愛)와 유애(有愛)와 무유애(無有愛)가 있다.”

이것이 인생고의 원인에 관한 불타의 해석이었다. 여기에서 그는 다시 이 인생고의 해결의 방법을 구한다. 거기에서도 또 그의 생각하는 방법은 ‘연기의 법칙’에 따라서 이루어졌다. 즉 ‘연기의 법칙’은 그 후반(後半)에 있어서 “이것이 없음으로 연(緣)해서 이것이 없다. 이것이 멸(滅)함으로 연해서 이것이 멸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에 의해서 그는 “무엇이 멸함으로써 연해서, 이 고(苦)의 인생이 멸하는 것일까”라고 물으며 그 결론을 제삼제, ‘고(苦)의 멸(滅)의 성제’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비구들이여, 괴로움을 없애는 성제란 이것이다. 즉 이 갈애(渴愛)를 남김없이 떠나서 멸할 때, 해탈(解脫)하여 집착(執着)없는 것에 닿는다.”

그리고 다시 불타는 이것의 실천과 실천의 길을 제삼제 ‘괴로움을 없애는 도(道)의 성제’라고 하며 이렇게 말한다.

“비구들이여, 괴로움을 없애는데 이르는 도(道)의 성제란 이것이다. 즉 성스러운 팔지(八支)의 길이다. 정견(定見), 정사(正思), 정어(正語), 정업(正業), 정명(正命) 그리고 정정진(正精進), 정념(正念), 정정(正定)이 그것이다.”

그러면 갈애(渴愛)란 무엇일까. 갈애의 멸이란 무엇일까. 또 성스러운 팔지의 길이란 어떠한 것일까. 우리들은 다시 그런 것을 탐구하여 사제의 충분한 이해를 얻고자 한다. 왜냐하면 여기에 불타 설법의 근본이 있으며 핵심(核心)이 있으며 총괄(總括)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읽는 유석질의론

(함허 스님 저, 송재운 교수 역)

불교는 서쪽 오랑캐 가르침인가

문 문 유교에서 불교를 힐끗보는 자는 반드시 불교는 서쪽 오랑캐의 가르침이므로 중국에 시행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중국 성인의 가르침은 도서(圖書)보다 우선함이 없는데 불자(佛者)는 의논함에 미치지 못하니 그를 하열하게 여김이 어찌 그럴만 하지 않겠는가.

답 답 이는 이른바 자기가 처해 있는 곳에 얽매어 큰 이치에 통달하지 못한 자라 할 것이다. 국토의 경계를 나눈 비유하면 그릇과 같다. 그릇이 크고 작음은 비록 같지 않다. 그러나 중심은 어느 그릇인들 없겠는가. 그것도 또한 한 천하며, 이것도 또한 한 천하다. 제하(夏=中國)가 천축을 오랑캐로 여긴다면 또한 천축(天竺)도 제하를 오랑캐로 여김이 어찌 알겠는가.

이것이 각황(覺皇)이 세상에 응하시어 교화를 드리우신 시종(始終)인데 어찌 오랑캐의 가르침으로써 중국(中國)에 시행함이 합당치 않다 말할 수 있겠는가. 청컨대 관견(管見)으로 말해 보겠다.

진에서 나옴에 응한 까닭이다. 금연(金蓮)으로 받은 까닭은 더러움에 처하여도 물들지 않음을 말함이고, 구룡(九龍)이 물을 토하여 금구를 목욕시킨 까닭은 구(九)는 양수(陽數)이고 물(水)은 양기의 변화한 바니, 그를 사용하여 음장(陰藏)의 기운을 세제(洗除)한 것이다.

사방으로 각각 일곱 걸음을 걸으신 것은 사방에 각각 칠요(七曜)가 있음을 보 이심이다. 칠요란 것은 음양오행조화(陰陽五行造化)의 으뜸인데, 사칠(四七)을 곱하면 하늘의 이십팔수가 되니, 하늘의 경이며, 눈으로 사방을 돌아본 것에도 중앙을 겸하면 오성(五星)이 되니, 곧 땅의 위(緯)이다. 경위(經緯)를 갖추고 문채(文彩)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자후(獅子吼)를 내신 것이다.

하늘을 가리키는 공이며 양(陽)이요, 땅을 가리키는 색(色)이며 음(陰)인데, 이는 음양공색(陰陽空色)의 중앙에 곧 진여자성(眞如自性)의 부처가 있음을 보 임이니, 그 세력이 홀로 존재하여 여계를 나란히 할 자가 있지 않은 것이다.

이 한 불토세계(佛土世界)에 사대주(四

불교를 서쪽 가르침이라 비난함은 얽매어 큰 이치에 이르지 못한 것

저 법왕(法王)이 세상에 응하심을 살펴보니, 체(體)는 태극(太極)이고, 용(用)은 건곤(乾坤)이니, 운용시유(運用施爲)가 자연히 천지로 더불어 유행(流行)하여 한 일·한 모양이 조화(造化)에 합하지 않음이 없는 자이다.

구천(九天)의 위에 상생(上生)하심은 장주(莊周)가 말한 바 ‘대명(大明)의 위, 지양(至陽)의 근원’이고, 자야(子夜)에 움직임을 하늘이 자(子)에서 열림에 응 함이고, 계속(奏卮)에 처태(處胎)하심은 땅이 축(土)에서 열림에 응함이며, 갑인(甲寅)에 탄생하심은 사람이 인(寅)에서 태어남에 응하심이다.

칠월에 입태(入胎)한 것은 음양(陰陽)의 기운이 서로 알맞기 때문이니, 부모의 기운이 고른 연후에 태에 들어가심이다. 그 심오를 취한 것은 양은 희고 음은 검은 중간이기 때문이고, 또 오(五)라는 것은 토(土)의 생수(生數)니 곧(坤)으로써 간직함에 응함이다.

사월(四月)에 출태(出胎)한 까닭은 음(陰)이 다하고 양(陽)이 극한 시기이기 때문이니, 음이 다하면 태기(胎氣)가 소멸(消滅)하고, 양이 극하면 태어난다. 그 팔일(八日)을 취한 것은 팔자(八者)는 열림이기 때문이며, 또 팔자는 목(木)의 성수(成數)인데 목은 진(震)이니, 제(帝)는

대(大)가 있는데 유독 남쪽부주(南瞻部洲)의 중앙을 취한 것은 남쪽은 명정(明正)하고 치우치지 않은 방향이기 때문이니, 그 법이 대중대정(大中正)하여 반드시 여기에서 유행함을 보인 것이다.

이는 곧 대대로 부처님이 세간에 응하시어 중생에게 열어 보이신 최초의 방편이다.

이러한 본 체(體)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작용(用)이 있는 것이니 진실로 세간의 성인이 방불할 바가 아니다. 그러나 이는 다만 사(事)로써 논(論)했는 뿐이지만 만일 이(理)에 나아가 말한다면 어찌 다만 이와 같을 뿐이겠는가.

불(佛)이란 깨달음이며, 화(華)는 비지행원(悲智行願)이니, 진심(真心)을 각오(覺悟)하면 비지행원으로써 묘체(妙體)를 장엄하여야만 위없는 보리를 이루게 된다.

경교(經敎)란 것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니, 손가락을 인하여 달을 보았다면 남아라고 말할만 하지만 혹 손가락을 집착하여 달로 여긴다면 어찌하겠는가. 어리석고 미혹함이 심한 것이다.

《유석질의론》 번역 저본은 동국대 역경원이 1984년 발행한 것(송재운 교수 역)을 발췌한 것이다.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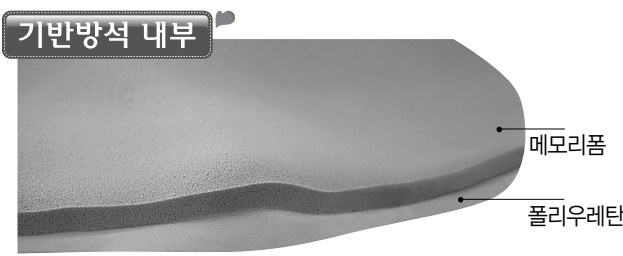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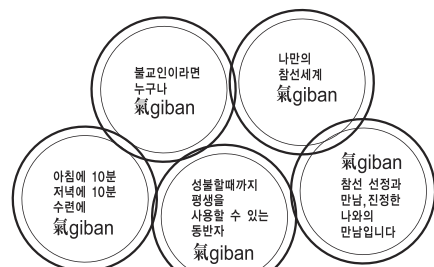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로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당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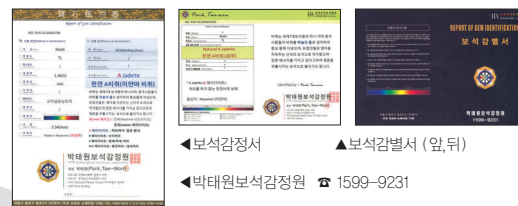
www.hyunbulshop.com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 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물에 지냈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비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는?

-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적으로 기록.
- ▶ 아주대 오홍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향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가 비취 목걸이(진옥) 가액 ₩180,000원
 격 비취팔찌-상(연옥) 가액 ₩80,000원